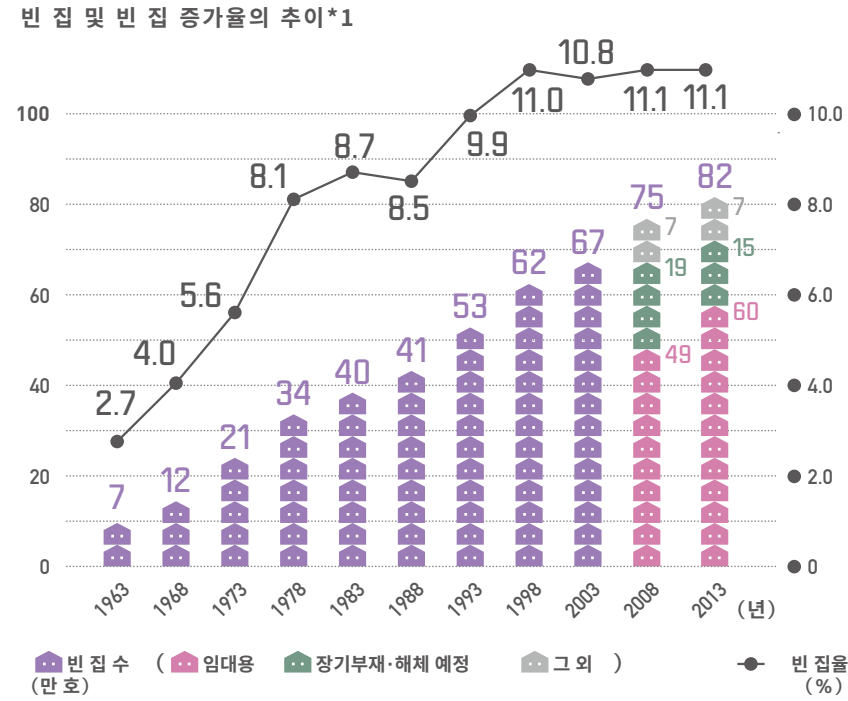


EFFECTIVE USE OF HOUSING STOCK

도쿄에 잠들고 있는 귀중한 빈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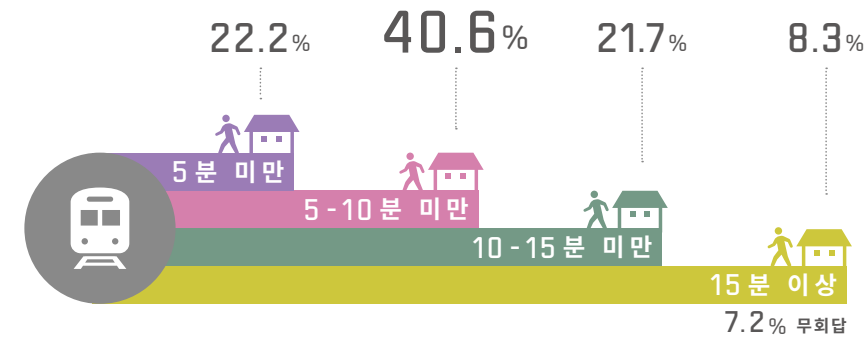
도쿄의 빈 집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태가 양호한 빈 집등의 기존 스톡을 살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 집의 입지*2

가까운 철도역까지의 소요 시간 (도보)
60%가 역에서 10분 미만인 지역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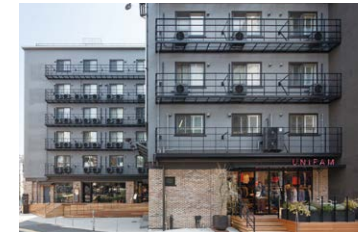
출전:*1 총무성 「2013년 주택·토지 통계조사」 *2 국토 교통성 「2009년도 빈 집 실태 조사」

기존 빈 집 스톡을 활용한 모범사례

쉐어형 복합 시설 「THE SHARE」 (시부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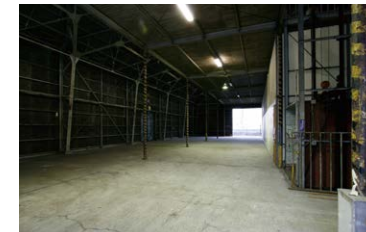


BEFORE 기업의 독신자 기숙사



AFTER 쉐어형 복합 시설 (점포·오피스·주택)

THE NATURAL SHOE STORE 도쿄 오피스 (주오구), 설계: Open A



BEFORE 창고



AFTER 오피스

상태가 양호한 빈 집을 활용해 지역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오타구)



제공:[쉐어형 복합 시설 「THE SHARE」 (시부야구)] 주식회사 리비타[THE NATURAL SHOE STORE 도쿄 오피스 (주오구)] Open A

COMMENT >> RYO YAMAZAKI

야마자키 아키라 도호쿠 예술공과대학 디자인 공학부 교수

지역의 과제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이나, 지역 만들기 워크숍, 그 외 여러 프로젝트 등에 참가. studio L대표. 박사(공학)

지역 주민들이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키워가는 일

시민들이 스스로 참가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일에 도쿄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70년대에는 현지의 지역 만들기 센터가 중심이 되면서 시민 주체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실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시민참가로 만들어진 시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는 「완만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직장과는 다르며 지역 주민사이에서 생겨난 약한 연결이지만노인의 고독사나 아이들이 잘못 말려들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적인 인프라 네트워크를 낳는 장소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적인 인재를 길러 가는 것이 앞으로의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치카와 시 아이 미래센터

시청의 옛 청사에 아이들이 몰려든다. 시설을 개조하여 활기 넘치는 장소로